

팔순 시조시인 부부 장성 첫 문학관 개관



'비오리갤러리문학관'은 이인성·정춘자 시조시인 부부가 백양사역 인근에 건립한 장성 첫 문학관으로, 장성 출신 대표 문인들의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장성하면 '문불여장성' (文不如長城)을 떠올린다. '학문으로는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의미로, 예로부터 뛰어난 문인들이 많이 배출했다. 현대 극작가 김우진, 아동문학가 김병호, 해방 이후 독특한 시세계로 지역문학을 이끌었던 박흥, 월북시인 오영재 등은 장성이 낳은 대표 문인들이다.

또한 당대의 대표 유학자들은 학문을 논하고 교분을 나누었다. 필암서원(하서 김인후), 고산서원(노사 기정진), 봉암서원(망암 변이중)은 장성의 학문이 얼마나 깊고 선비 정신이 강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문불여장성'을 상징하는 첫 문학관이 장성에 건립돼 눈길을 끈다.

시조시인 이인성·정춘자 부부가 백양사역 부근에 '비오리갤러리문학관(문학관)'을 건립하고 최근 개관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문학관 건립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한 것이 아닌 문학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 건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도시가 아닌 군 단위에서 지역 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문화공간을 조성했다는 점도 남다르다.

"평소에 문학관을 하나 짓고 싶었습니다. 장성의 문학을 어떻게 하면 후세에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죠."

남편 이인성(88) 시인이 반갑게 기자를 맞아준다. "특별할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수고스럽게 왔냐"며 애써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짧은 시절부터 여행을 가면 꼭 기념이 될 만한 사물을 사가지고 오는 습관이 있었죠. 아마도 문학관 건립도 그런 연장선에서 지역의 문학을 후세대에 알리자는 차원일 거예요."

부인인 정춘자(81) 시인이 시원한 차를 내으며 덧붙였다. 화가이자 시조시인으로 활동하는 터라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인사다.

함께 동행한 박형동 시인(전 전남문인협회 회장)은 "비오리는 새 중에 가장 금슬이 좋은 조류로 알려져 있다"며 "부부 시인의 사랑이 비오리의 그것처럼 깊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인의 말에 옆에 있던 부부가 손을 내짚

이인성·정춘자씨 사비 털어

'비오리갤러리문학관' 문 열어

장성대표 문인들 자료·작품 전시



사비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이인성·정춘자 부부.

다. 금슬과 사랑이라는 말이 부부에게는 여전히 익숙지 않아 보였다. 박 시인의 안내를 받으며 문학관을 찬찬히 둘러본다. 탁 트인 곳에 서 있는 문학관은 세련미와 자연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 정원에는 장성을 비롯해 남도 출신 문인들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이곳 부지는 두 부부가 문학관을 짓기 위해 오래 전에 마련했다. 1층은 갤러리, 2층은 문학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건평은 100평 남짓 된다. 갤러리에는 한국화 화가로도 활동해온 정춘자 시인의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문방사우가 전시돼 있다. 정작가는 부산한국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역량이 있는 화가다.

1층의 갤러리를 둘러보고 2층에 오르면 색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김우진, 김병호 등 장성이 낳은 대표 문인들의 자료와 대표 작품집 등이 비치돼 있

다. 수필 문학의 거봉 이상보의 작품, 북한의 계관시인 오영재의 자료 등도 볼 수 있다. 문학관 설계부터 건립, 자료 준비에 이르기까지 두 부부와 박형동 시인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 보였다.

남편인 이인성 시인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한약방을 운영해왔다. 한약 관련 서적도 많이 펴냈고 한약협회 학술위원장도 역임했다고 한다. 장성에서 발행하는 '21세기' 책자에 한방의학 시리즈를 20여년 넘게 써올 만큼 지역에서는 명사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문단 등단은, 부인이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1990년 장성문협을 통해 등단했으며, 이후 남편 역시 1995년 장성문협을 통해 시인이 됐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시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보다는 시조가 더 저에게는 친숙해요. 길을 걷다가도 문득 시상이 떠오르면 메모를 해둬다가 집에 와서 글을 쓰거든요."

정작가의 말이다. 부창부수는 두 부부를 이르는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보니 현역으로 활동하는 부부 시조시인이 거의 없는 문단에서 두 사람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문학관을 짓는데 자녀들의 성원과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5남매를 뒀는데 모두 의사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다. 주말이면 이곳에 들려 공사 상황을 세심하게 살폈다.

정원 한편에는 시를 읽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자 '화영루'가 있다. 무엇보다 문학관이 답양과 고창, 정읍과 장성으로 향하는 사거리에 위치해 근동의 대표 문화기관이 될 것 같다.

박형동 시인은 "이곳 문학관을 매개로 장성을 비롯한 남도의 문화와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창작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근면하고 정직하게 모인 재산을 들여 문학관을 건립할 두 분의 유지를 잘 받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개최된 문학관 개관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이계호 국회의원,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 임점호 전남예총 회장, 김용국 전남문인협회 회장, 임춘인 장성문인협회 회장, 지역 문학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글·사진·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안미술관 어린이 특별전 '아이' M 쏘 Good

7월 31일까지...작가 5명 초청

'아이들, 미술관에서 놀다.' 광주 주안미술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 '아이' M 쏘 Good'전을 오는 7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지난해 열린 '아트키카'에 이은 두번째 어린이 전시다.

이번 전시 주제 '아이' m 쏘 Good'은 '아이들이 소소하게 일상을 잘 지낸다'는 의미와 영어로 'I m so good'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행형색색의 컬러 조명으로 화려하게 공간을 연출하고 알록달록한 색감의 작품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감성적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꾸며 전시장을 '키즈 전시 놀이터'로 변모시켰다.

전시에는 모두 5명의 작가를 초청했다. 평소 꿈에서 보던 이미지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작품화하는 강동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하이브리드사피엔스(Hybrid Sapiens) 작품 시리즈를 선보인다. 어릴 적부터 상상해왔던 새로운 혼종의 인간상을 만화나 그래픽같은 경쾌한 이미지로 표현해냈다.

김연호 작가는 유년시절의 불안을 치유했던 데 많은 도움이 됐던 어릴 적 동화 속 배경의 벤치와 집, 가로등의 불빛 등을 차용해 위로로 주는 작품을 전시하며 박정일 작가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여유와 행복, 진정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전히 어린 감성을 갖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혜립 작가는 어린이라 외면했던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소년이라는 존



박정일 작 '가족'

재를 통해 들여다보며 정승원 작가는 복작이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 폭죽 등으로 화려하게 표현한 판화 작품을 통해 일상 속 곳곳에 즐거움과 희망,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문의 062-222-208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생활용기서 예술작품까지... 다양한 도자의 세계



금봉미술관

7월 12일까지

'陶視樂(도시락)' 전

이영근 작 '다정'

첫잔, 도자인형 등 다양한 도자(陶磁)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금봉미술관이 기획 전시 '陶視樂(도시락)'전을 오는 7월12일까지 1층 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에는 나문심·나현애·박양석·박현정·유정·이경숙·이영근 등 모두 일곱명의 작가를 초청했다. 참여작가들은 첫잔을 꾸밈있게 창작한 생활도에 작품부터 도자인형 작품, 물레로 빚어 둥근 맛을 살린 향아리 작품, 벽에 고정할 수 있는 도자 작품 등 휴과 불을 활용해 자신만의 연로 다양하게 표현한 조형언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영근 작가는 청초한 꽃무늬가 인상적인 첫잔 세트 '다정'을 전시하며 이경숙 작가는 투박한 도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나는 세상을 바라본다'를 선보이고 있다. 또 유정 작가는 아가자기한 매력이 돋보이는 도자인형 '사랑'을, 나문심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작한 첫잔을 넣는 향아리인 '라쿠차호樂燒茶壺'를 전시한다.

휴과 불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은 도자 작품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의 062-269-988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CES** **BIG INNOVATION AWARDS**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